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6. 12.(금) 11:00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맞아 본격적인 성과창출 당부

- 기획예산처 제6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업무유공 포상 수여식 진행
- 기획처 AI-ON 추진을 계기로 간부 및 전직원의 AI 역량강화 당부
- 과감한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 의지 표명

기획예산처는 '26.6.12.(금)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대회의실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6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박홍근 장관은 '업무유공 포상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포상은 올해 최초로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성공적으로 도입·안착 시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3명의 직원에게는 업무유공 표창장 및 1인당 100만 원의 정책우수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6월은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면서 지방선거 마무리, 22대 후반기 국회 출범, 정부 출범 1년 경과 등이 맞물리는 등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기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예산안 편성, 중장기 전략 과제 발굴 등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는 지금이야말로 기획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업무 전 과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여 AI 교육에 참여하는 등 AI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상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책 성과 창출 과정에서 과감한 행정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박 장관은 간부들이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독려할 것을 지시하며, “적극행정으로 창출된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지출구조조정 실시,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 등 기획처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는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류승수 (044-214-1410)
		담당자	서기관	이홍섭 (leehs86@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나현 (nahyun5959@korea.kr)

